

## 문항 | 국어 문제 2 [배점 10점]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F(Science Fiction)는 과학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는 장르로, 소설, 영화, 게임, 만화 등 문화 콘텐츠의 전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SF는 단지 과학적 상상력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문제, 현재 및 미래 사회의 문제 등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지적 반응을 자극하여 사람들이 세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초기의 SF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그려 낸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유사한 장르로 여겨졌고,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 비평가인 다르코 수빈은 SF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수빈은 판타지와 구별될 수 있는 SF만의 특징을 정리하기 위해 '낯선 것'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판타지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되는 장르로, 낯선 것들이 등장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판타지에 등장하는 낯선 것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판타지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상상의 존재는 작품의 세계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의심하고 거부한다면 판타지라는 구조가 깨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판타지 작품에서 용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는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품을 수용하는 중에는 용이 실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SF도 상상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낯선 것이 등장하지만 판타지와는 다르다. 수빈은 SF를 인지와 낯섬의 상호 작용인 '인지적 낯섬'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하며 판타지와 구별하였다. 인지는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낯설게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지와 낯섬은 반대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수빈은 SF가 인지와 낯섬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이 SF의 주요 형식적 장치가 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모두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인지의 영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상의 틀은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SF 작품에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이 등장한다고 하자. 이를 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은 현재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된 낯선 것이지만,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개연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판타지의 낯선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SF에 등장하는 낯선 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판타지를 접할 때와는 달리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낯설게 바라본다. 수빈은 SF의 낯선 것이 단지 상상력을 표현하는 작품 속 장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낯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며 느끼는 낯섬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낯섬으로 이어진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현실을 낯설게 느끼며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수빈은 SF의 낯섬은 단지 새로운 것을 접하며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구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수빈은 SF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다른 특징으로 '노뎀(novum)'을 이야기하였다. 노뎀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SF 속 세계를 구분해 주는 가장 큰 구분점이 된다. 노뎀의 특징은 총체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학 기술의 발달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기술의 등장은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작품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볼 때도 적용된다. SF에 등장했던 노뎀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SF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관점의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수빈은 노뎀이 개연성이 있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SF에 등장하는 새로운 것들은 판타지에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들과는 달리 과학 기술적 원리에 기반한다.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거나 아직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과학 기술적 사고에 기반한 상상력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구성이 가능하고, 총체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수빈은 이러한 노뎀의 특성을 잘 구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SF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국어 문제 2

아래 <보기>의 글을 밑글의 내용과 연계하여 읽고, 괄호 안의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한 단어를 각각 밑글에서 찾아 넣으시오. [각 3.5점, 3.3점, 3.2점]

㉠:                    / ㉡:                    / ㉢:                   

<보기> SF소설 ○○○에는 외계인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지구를 정복하려 하지 않고 인간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주인공인 언어학자는 외계인들의 언어를 배워 소통을 시도하지만, 인간과 외계인들의 언어 체계나 개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인간의 언어는 단선적인 시간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원인과 결과를 논할 수 있지만, 외계인들의 언어는 순환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서 앞뒤를 정할 수가 없다. 앞이 뒤가 되고 뒤가 앞이 되며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에서 순환하는 상태인 것이다. 결국 외계인의 언어를 습득한 주인공은 단지 새로운 언어를 익힌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시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외계인의 시간관을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이다. 이는 주인공이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즉, 이 SF소설의 줄거리를 '다르코 수빈의 관점에서 볼 때, 소설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의 언어는 주인공이 경험하지 못했던 (㉠)을(를) 유발하는 것이며,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여 주인공의 세계관을 (㉡)으로(로) 바꾼다는 점에서, SF의 특징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해설 | 국어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핵심개념 및 용어	SF(Science Fiction), 상상, 인지, 낯설, 노뚝(novum)
출제 의도	독서 영역의 기본적 의미이자 일반적 평가 기준인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지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주어진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지문 내용과의 연관성과 맥락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출제 교재	EBS 수능특강 2026(독서)	
문제 해설	위 지문은 SF의 장르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F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 다르코 수빈은 SF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는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개연성을 추구하며, 사람들은 이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낯설게 바라본다고 하였다. 이때 SF의 낯선 것은 낯설음을 유발하며 나아가 현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수빈은 SF의 특징으로 '노뚝(novum)'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로,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총체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의 언어는 상상력에 기반하면서도 주인공에게는 경험하지 못했던 낯설음을 유발하는 것이며,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총체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SF의 특징 중 수빈이 말한 '노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문항 | 국어 문제 3·4 [배점 각 10점]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참, 저 남북 교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또 이렇게 물었다.

[가] [“네? 교류요? 글썄…… 결국 이렇죠. 지금 당산하구 나하구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참 간단하게……. 그러나 이런 걸 고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런 투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박하구 낙천적인 생각이요, 우리의 경위라는 것은 조금 더 착잡해요, 결국 객관적인 조건이 문제지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객관적인 정세의 리얼리티를 리얼리티대로 포착하는 것…… 참 리얼리티라는 말은 모르겠군.”]

진수는 얘기가 신명이 나지 않는 듯 뜨적뜨적 이렇게 말하곤 씩 웃었다.

“사실주의의 그, 그것 말이지요?”

“네, 네, 결국 그런 것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민족의 양식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요새 와선 좀 변모를 했어요. 현실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자 그녀가 달래듯이 말했다.

[나]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도 복잡하지도 착잡하지도 않아요, 지극히 간단하지 않아요? 당신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간단하지요, 패배 의식과 우유부단은 못써요, 문제는 간단한 걸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대들어요. 교류를 하면 교류가 되는 거야요.”]

“그러나 경우로서의 타산이 있어요, 그런 본질론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건 당신들로서의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의 내력이 또 있어요, 철저한 현실주의가 작용하는 거지요. 사실상 막 하는 말로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측면 아시지요?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야겠군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방법에 불과해요.”

그러자 그녀는 두 눈을 깜짝깜짝했다.

“요컨대 피할 까닭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의 표준이라는 걸 어디다가 두고 계시나요? 어느 특정된 개인의, 혹은 집단의, 감정적인 장애라든가 타성에서 오는 고집이라든가 우선 그런 건 제거되어야 하지 않아요? 선택할 권리는 묻혀서 사는 일반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주어야 해요.”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좀 강렬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진수가 응했다.

“그렇지요,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지요, 아무렴요. 당신들은 쫓니까, 당신들 세계에서 자유라는 건 어떤 양상을 지니는가요? 자유조차 강제당하는 건 아니요? 설사 그것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선택된 몇 사람의 일정한 양식으로서의 옳은 강제라고 가정하더라도 말이지요, 팍팍하고 죄여 오고…… 어때요? 거기서 견딜 만해요? 솔직히 말하세요.”

진수는 조금 신랄한 데를 찌른 듯하여 비죽이 웃었다.

그러자 그녀는 발끈했다.

“신념이 문제지요, 자유는 허풍선과 같은 허황한 것일 수가 없어요. 자유의 진가는 일정한 도덕의식과 결부가 되어서 비로소 발휘되는 거지요, 자유 이전에 정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이용만 당해요, 빛 좋은 개살구지요, 우리의 모랄의 기본이 뭇인지 아세요? 우리 전체가 나갈 바 방향이야요. 개인은 거기 한테 영켜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자유야요, 결국 신념이 문제지요, 당신의 생각은 나태 그것이야요, 타락되고 싶다는 말밖에, 놓고 싶다는 말밖에 아니야요, 자유에 대한 옳은 인식도 없고 일정한 신념도 없고, 있는 것은 임시 임시 그날그날의 자기와 희부연 자기밖에 없어요, 비트적거리고 주저 않고 싶은 자기…….”

“그럼 자기를 팽개치고 무엇이 남아요? 놓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은 자유란 최고급이지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것을 크낙한 관용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있어요. 부피와 윙통이 있는, 그런 것이 적당히 용서가 되면서도 전체로 균형이 잡혀 있는…… 참, 어느 것이 허풍선이나 따질까요? 자기조차 팽개쳐 버린 신념덩이가 허풍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자기를…….”

“천만에, 자기가 없이 어떻게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왜 팽개쳐요? 완벽하고 명료한 자기는 신념에 밀받쳐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흐늘흐늘하고 비트적거리는 자기의 검불만 남아요, 그러구 당신의 자유에 대한 견해도 썩어빠진 거야요, 한마디로 썩어 빠진 거야요, 썩 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가…… 어마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있지요, 있구말구,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부파와 깊이는 한이 없어요, 당신들은 사람도 어떤 효율의 데이터로 간주하구 있어요. 당신들 사회에서의 모랄의 질(質)이 대개 짐작이 되는데 일면적인 거지요.”

“아니야요, 다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다급해 있다 뿐이지요, 원인은 그것뿐이야요.”

“참 도스토옙스키나 셰익스피어를 아시오? 어떻게 생각하시요?”

“알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약간 자신을 희화화하여 놓고 필요 이상으로 비장한 몸짓을 하는 도시 소시민의 사변 철학이고,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는…… 시민 사회가 싹트기 시작하는 사회의 여러 모를 부피 있게 부각시켰어요.”

“무서운 추상이로군.”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요 본질이 그래요, 세부에 구애되지 말고 큰 윤곽으로 포착해야 해요.”

마침 좀 전의 그 외국인 여자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오우 원더풀’ 히죽 웃으면서 이런 표정을 했다. 그리하여 잠시 얘기가 끊겼다. 좀 뜸하다 했더니, 좀 전에 요란스럽게 지껄이던 안경잡이와 그 ‘누님’께선 같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 누님은 그냥 키들거리고 웃었다. 회담 장소 건너편 쪽 처마 밑에서는 양편 사람들 대어섯 명이 우르르 붙어서 실랑이질을 하고 있었다.

들여다보이는 회담은 바야흐로 서릿바람의 도가니였다. 납치한 어부들을 당장 송환하라는 것이었다. 기본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자상한 내용은 들리지 않고 그저 스피커 소리가 귀에 윙윙하기만 했다. 저편은 울부짖고 이편은 전혀 무관심의 표정이고, 이편이 울부짖으면 저편엔 섬세한 아우조가 지나가고, 드디어 저편에선 책상을 두드리고, 순간 맞은편에 앉은 이편 사람은 시끄럽구먼, 왜 이리 야단이며, 이쯤 조금 어리둥절한 눈짓을 하고, 비로소 스프링이 달린 쇠붙이 의자를 한번 들쭉시키고, 헛기침을 하고, 똑똑히 들으란 말이며, 별로 쓸모없는 소리지만, 이렇게 미리 다지거나 하듯이 상대방을 일순간 맞바로 쳐다보고, 그리곤 내리읽고…… 이번엔 스피커에서 영어가 울리고…… 서릿바람이 일고…… 이런 것의 연속이다.

(중략)

동편 쪽에 세로 섰던 빛기둥도 어느새 사라지고 더욱 어두워졌다. 비로소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조용해졌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혹은 들판을 내다보았다. 그러고는 정신을 차리듯이 수선대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생철 지붕이 와당와당 와라랑 하자 울부짖던 스피커 소리가 아득해졌다. 망 위엔 보안 빔물 안개가 서리고 하늘과 땅이 그대로 붉은 물줄기로 이어졌다. 순간 회담 장소 안에 앉은 사람들도 일제히 밖을 내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하, 굉장한 소나기군, 모두 이렇게들 생각하는가 보았다. 그 놀람도 록 일률적인 표정이 기묘한 역설을 의식하게 했다. 늘어진 경비원들이 처마 밑이나 조금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해 서고, 돌레에 서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급기야 이리저리 엇갈리며 괴이한 소리를 내지르면서 막사로 뛰기 시작했다. 그 필사적인 분위기가 전염이 되어 모두가 와르르 헤쳐졌다. 순간 진수는 덤석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화닥닥 놀란 김이라 손을 잡힌 채 같이 뛰었다. 앞에 지프차가 가로 섰다. 진수는 그 문을 열고 그녀를 올려 앉혔다. 그녀는 같이 뛰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딱히 모르고 덮어놓고 올라탔다. 진수도 곧 지프차에 올라타자 문을 닫고 문고리를 채웠다. 어마아, 비로소 그녀는 이런 표정이 되더니 문을 열고 와락 나가려고 하였다.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온 상판이 무섭게 찌그러지며 사무친 애걸 조로 바라보았다.

“안심해, 그편 차니까.” /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무슨 암시나 받은 것처럼 활짝 피어나듯 웃었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아직 어느 쪽 차인지 알지 못했다.

### 국어 문제 3

윗글에서 회담장의 긴장된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전환하고 이완하는 기능을 하는 대상을 찾아서 적으시오. [10점]

### 국어 문제 4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남북 교류’와 관련하여 [가]와 [나]에 나타난 각 인물의 심리적 태도를 아래 조건에 맞게 적으시오. [10점]

조건 1) [가]: ‘남북 교류를 통한 관계 회복’에 대한 ‘진수’의 심리적 태도를 적을 것.

조건 2) [나]: ‘남북 교류를 통한 남북의 화해’에 대한 ‘여기자’의 심리적 태도를 적을 것.

<보기> 이 작품은 1961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그동안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를 완화하고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판문점은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 남북한의 대표가 회의를 하는 장소이지만, 판문점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에서는 남북 대표가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의 근본 원인은 남과 북의 지식인을 표상하는 진수와 여기자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특히 이들의 ‘남북 교류, 자유와 정의, 정치 체제’ 등에 대한 논쟁은 남북이 분단된 사이에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작가는 남북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회의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만 마침내 화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내려 하였다.

## 해설 | 국어 문제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현대 소설, 인물의 심리, 인물의 태도, 작품 감상
출제 의도	이 작품은 한국 전쟁과 분단으로 이질화된 남북한의 현실을 '판문점'이라는 공간으로 보여주는 분단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소나기'라는 소재가 사건 전개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출제 교재	EBS 수능특강 2026(문학)	
문제 해설	남북의 회담 참가자들은 날카롭게 대립하고 이로 인해 회담장의 분위기에는 긴장감이 넘친다. 이때 내리는 소나기는 참가자들의 시선을 잠시 외부로 돌리면서, 회담장의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전환하고 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해설 | 국어 문제 4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현대 소설, 인물의 심리, 인물의 태도, 작품 감상
출제 의도	이 작품은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1960년대에 발표되었다. 작품은 남한의 타락성, 북한의 경직성을 모두 비판하면서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편견 등을 버리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출제 교재	EBS 수능특강 2026(문학)	
문제 해설	<보기>를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했을 때 진수는 남한 사람의 보편적 인식을 대변하고 있으며 남북 교류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남북 교류를 통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소박하고 낙천적인 생각이라며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자는 북한 사람의 보편적 인식을 대변하고 있으며 남북의 화해 방법이 복잡하지도 착잡하지도 않다고 말하며 단순히 교류에만 집중하면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